

知性的 메카 케임브리지大學

金 允 漢

(曉星女大 獨語獨文學科)

1. 大學의 起源과 College 제도의 確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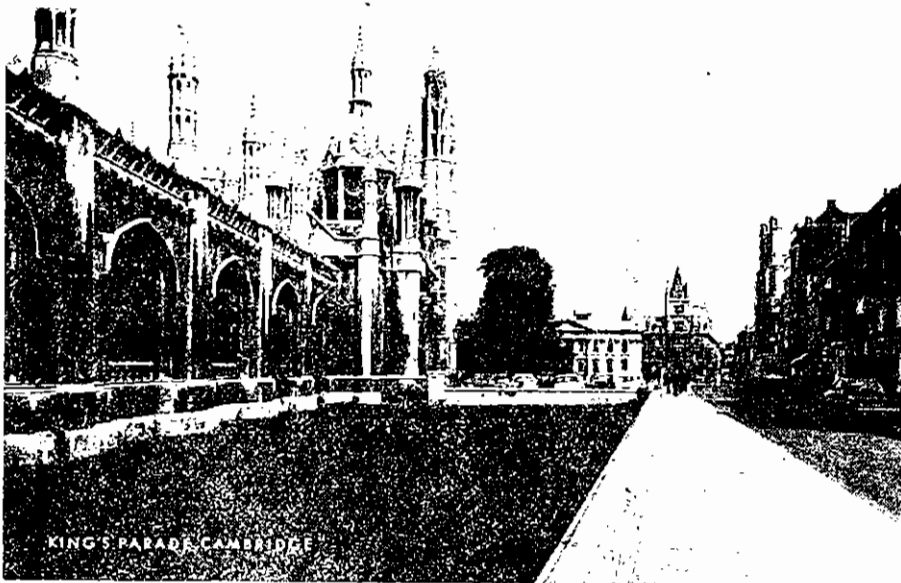
케임브리지市는 이미 로마시대에 군사 요충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 번창한 도시다. 중세 초기에 옥스포드에서 학생과 시민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서 세 명의 학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일단의 교수와 학생들이 그들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케임브리지로 왔다. 몇 년 후 옥스포드가 다시 평화로와지자 교수 및 학생들이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갔으나 많은 교수와 학생들은 케임브리지에 정착했다. 이 곳에 학생들이 모여들자 케임브리지는 새로운 학문의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케임브리지대학의 시작이며, 인구가 많은 동부 Anglia 와 Midland로부터 학생이 모여들어 큰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케임브리지대학은 1229년 로마 교황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그 첫 총장에 Hugh de Hottun(1246년경)이 선출되었다.

케임브리지대학은 원래 옥스포드나 파리에서 피신해 온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옥스포드대학보다 한층 더 진취적이고 자유스러웠다. 그러나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자 케임브리지는 이들에게 강의실이나 숙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었다. 특히 학부 학생들의 숙소난은 사회적, 재정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그리

하여 마침내는 1231년에 학자들로부터 부당한 방세를 요구하는 숙박업자들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는 일까지 일어났다. 외국의 학자나 학생들이 숙소 문제로 영국을 떠나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한 국왕은 대학측에 두 명의 학감과 두 명의 시민 대표로 하여금 방세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숙소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져서 교육의 가장 긴급한 문제로 되었다.

중세 대학의 학생들은 현재의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대부분의 학생의 집안 사정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착취당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전된 것이 학문공동체인 칼리지(college) 제도였다. 이 칼리지제도는 영국의 전형적인 것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이 제도의 첫 단계는 강의실이나 기숙사를 임대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임대주는 대학 당국에서 인정한 대학의 선임 교수였으나 건물 그 자체가 대학에 속하지는 않았다.

중세의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대학의 강의실, 기숙사는 물론 소규모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칼리지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존재하여 수세기 동



◀ 케임브리지대학의 College는 완전 독립기구로서, 학사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안 칼리지제도와 공존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되었다. 그 중에서도 옥스포드의 Hart Hall, Broadgates Hall과 St. Edmund Hall, 케임브리지의 Andrew-Docket가 세운 St. Bernard's Hotel은 칼리지제도의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비교적 대규모의 홀이나 호텔은 작은 예배당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으로 학문공동체인 칼리지에 병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홀이나 호텔은 방세를 지불할 수 없는 학생들은 거주할 수 없고, 또 방세를 내고 거주할 사람이 없다면 운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칼리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방세를 지불할 수 있는 학생들이 기거하게 되자 중세기를 통해서 존속되었던 홀이나 호텔은 결국 재정난으로 폐쇄되고 말았다.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대학의 칼리지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소유의 기숙사 부속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홀이나 호텔이 존재했었다. 칼리지는 수도원이나 양로원 등과 같이 실제로 확고한 재정적인 도움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확고한 재정 지원은 초기 칼리지제도의 확립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말하자면 칼리지제도란 어떤 특정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문공동체인데 칼리지의 재정적

인 기반이 확고해지자 소속 건물들이 계획에 따라 건립됐고 또 그 규모도 커졌다. 초기의 칼리지는 원래 학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궁핍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했다. 이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대학원생이나 교수들뿐이었으며 원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 16세기 후에야 비로소 학부 학생들도 칼리지의 기숙사에 수용되었다. 현재에도 옥스포드대학의 All Soul's College는 초기 칼리지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학생들은 없고 교수들만이 거주하면서 수업은 하지 않고 연구만을 한다. 케임브리지 칼리지 중 Corpus Christi가 이와 유사하다.

13세기부터 케임브리지에 칼리지가 건립되기 시작했는데 첫번째의 칼리지인 Peterhaus가 1284년 Ely의 주교에 의해서 세워졌다. 1441년에 Henry VI세는 King's College를 세웠는데 그 이후로 영국 왕실의 도움을 입어 1448년에 Queen's College가, Henry VIII세에 의하여 1546년에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큰 Trinity College가 건립됨으로써 케임브리지대학의 칼리지제도가 확립되었다. 중세기의 케임브리지대학에서는 주로 라틴어, 논리학과 수사학이 중점적으로 교수되었으며 시험은 구두 시험이었다. 그

당시 졸업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세 발 달린 의자에 앉아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졸업 시험을 현재에도 Tripos 라고 부른다.

17세기 중반 시민전쟁 때 케임브리지대학은 Cromwell(Sidney Sussex College 출신) 편을 지지했으며 그 전쟁으로 인하여 심하게 파손되었다. 18세기경부터 케임브리지대학은 극도로 퇴보하기 시작했는데 1830년에 Sidney Sussex College는 9명의 학부 학생들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빅토리아왕조의 중반기에 자연과학연구소의 대폭적인 확장과 더불어 케임브리지대학에는 당시 새로 등장한 증산제주의 사업가 자제들이 몰려들어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다. 1864년 Cavendish의 私財로 Cavendish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케임브리지대학은 자연과학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되었다. 1920년경 이 연구소에서 Rutherford가 핵분열에 성공을 했고, 컴퓨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케임브리지대학은 설립 이래 약 800여년간 남자들만 입학이 허용되었으나, 1869년에 Emily Davis가 Girton College를 세움으로써 처음으로 여학생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Girton College는 남학생들의 칼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외에 있다. 여학생들은 제한된 범위내의 강좌만을 청강할 수 있었으며 학위는 받을 수 없었다. 1948년에야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위를 취득하고 칼리지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1972년부터 절반 가량의 칼리지가 여학생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케임브리지대학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10 : 1 정도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칼리지는 국왕, 주교, 귀족 등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현재 29개의 칼리지가 있으며 그 중 Clare Hall, Darwin College 등 6개의 칼리지는 대학원생과 연구원만을 받아들인다. 유니버시티(university)는 중앙 통치 기구로서 교과과정을 제정하고 시험을 주관하며 학위를 수여하는 일을 관장한다. 그리고 그 운영 비용은 정부의 지원금과 칼리지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Henry VIII세가 처음으로 대학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Elizabeth I세에 의해 수정되었을 뿐 현재에도 그 법률이 유효하다.

어떠한 법률의 변경도 국왕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학 운영 기구로는 Senate가 있는데, 여기에는 60,000여 명의 케임브리지대학의 대학원 졸업생 모두가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 운영의 핵심 기구는 16명의 교수로 구성된 Council of Senate이다. 현재 명목상의 Chancellor는 Philip 공이며 케임브리지대학의 실권자는 Vice Chancellor, Registry, Treasurer이다. 그 반면에 칼리지는 완전 독립 기구로서 입학생의 수, 학생의 복지, 개별 지도 교수의 배정 등 거의 모든 학사 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유니버시티는 행정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각 칼리지는 그 고유의 전통과 학풍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Trinity Hall은 법과생에게, Churchill College는 자연과학도에게, Selwyn College는 신학생에게 가장 좋은 칼리지인 것이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칼리지는 대단히 부유하며 Oxbridge 대학(통상 Oxford 대학과 Cambridge 대학을 합해서 이렇게 부름)은 영국의 왕실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은 275,000에 이커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케임브리지대학의 Trinity College는 영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런던의 변화가인 Oxford Street도 거의가 케임브리지대학에 속한다. 이와 같은 거액의 자산은 주로 기부나 투자에 의해서 결성되었다. Keynes가 King's College의 Bursar로 있을 때 부동산에 투자를 잘 하여 King's College는 엄청난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케임브리지대학은 토지 외에도 증권 투자, 귀중한 원고, 도서, 예술품 등으로 막대한 富를 누리고 있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 공황, 불경기에도 이들 칼리지는 재정적인 궁핍을 모른다. 모든 이익금이 시설 확충, 실험 기구 및 도서 구입, 장학금 등에 사용되므로 현재 케임브리지대학은 세계의 정상상을 차지했고 또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2. 大學의 特性과 College 生活

Oxbridge 대학의 입시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대학의 입시 경쟁률은 영국에서 가장 낮아서 2:1 정도다. 물론 Eton, Westminster 등 주로 일류 고등학교의 졸업생 중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케임브리지대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대체로 부모의 영향, 교우 관계 또는 가문, 배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지원 동기는 학생들 자신에 의한 것이다. 영어의 'education'(교육+교양)이 말하듯이 영국 대학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신사를 길러 내는 데에 있다. 즉 케임브리지대학의 교육 이념은 全人敎育이다.

대학이란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케임브리지대학의 제도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된다.

Humboldt의 창학 정신에 따라 설립된 독일 대학 학생은 교수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격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 반면에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은 모두가 칼리지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상호간뿐만 아니라 교수와 선배들로부터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끊임없는 토론과 상호 의견 교환, 수많은 사교 모임과 행사, 운동 경기 등을 통해서 학문 외에도 공동 생활을 배우고 심신을 단련하고 사회적인 경험을 풍부히 하면서 동시에 경쟁심을 기른다.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은 찬란한 전통 속에서 학문은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처세술을 배운다. 그들의 평소의 언행을 보면 과연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의 학문과 인품을 형성해 준 칼리지와는 일생 동안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창생들간의 유대 관계도 대단하고 그들만의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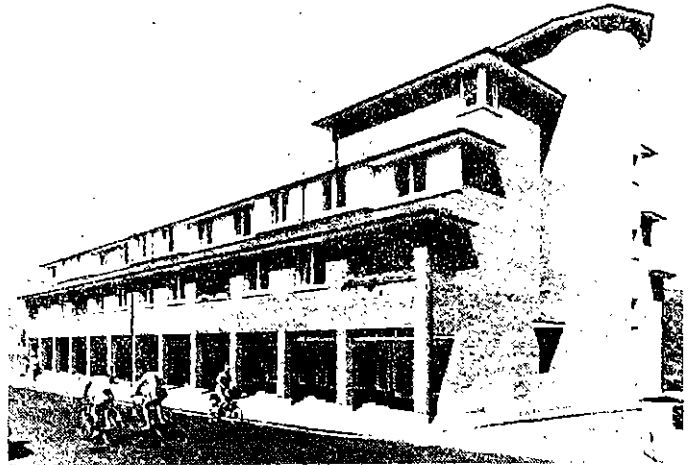
하나의 학문공동체인 칼리지는 교회, 도서관, 기숙사 그리고 식당

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케임브리지의 칼리지들은 건축 양식의 전시장과 같이 아름답고 다양하며 대부분의 건물은 석회석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밝은 인상을 준다. 그래서 건물이 인간을 만든다는 영국인의 속담을 실감케 한다.

칼리지의 구성 요인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정원으로서 칼리지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면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훌륭한 선물이 정원이라는 베이컨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00년 이상을 잘 가꾼 넓고 푸른 잔디밭이 안정감을 주며 몇 백년 자란 거목들 앞에는 어느 졸업생이 언제 이 나무를 심었다는 작은 팻말이 꽃혀 있다. Milton이 심었다는 뽕나무는 거목이 되었고, Newton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그 사과나무의 후손이 그가 거처했던 방 앞뜰에서 아직도 자라고 있다. 밀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서 가꾸어야 자연림이 귀목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고난 자연적인 능력은 학문을 통해서 갈고 닦아야 빛을 볼 수 있다는 진리를 케임브리지멘들은 웅장한 정원을 거닐면서 터득하였을 것이다.

칼리지내에서는 전공이 서로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기거하기 때문에 전공 과목 외에도 다른 분야의 학문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학문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전공 과목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칼리지의

▼ Sidney Sussex College



운동장에서 크리켓 경기 등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할 뿐 아니라 사교를 배우고 신사도를 익힌다. 저녁에는 칼리지의 바에서 맥주나 위스키를 마시고 음악 감상도 한다. 바에 아무도 없을 때는 학생들 스스로가 술을 마시고 외상 장부에 기입한다. 학교내에서 모든 거래는 신사도 때문인지 현금 거래가 아니고 신용 거래다. 월말에 계산서가 나온다.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학문과 낭만의 조화라고나 할까?

케임브리지대학에는 약 12,000 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있는데(8,500 명의 학부생, 1,500 명의 대학원생, 2,000 명의 교수) 학부생들은 무조건 소속된 칼리지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야만 degree 시험(졸업 시험)에 응할 자격이 부여된다. 1년은 3 학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매학기는 8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학기에는 강의나 세미나가 개최되지만 3 학기에는 시험 준비를 위해서 강의를 거의 없다. 모든 학생들은 전공 분야 지도 교수(director of studies)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지도 교수는 주로 같은 칼리지에 소속된 선배 교수(don)이다. 그 외에도 칼리지에는 학생들의 복지를 전담하는 교수도 있다. 칼리지마다 간호원이 배치되고 양호실이 있어 학생의 건강을 살피고 병이 나면 간단한 치료와 간호를 해준다. 또 거실 청소도 해주며 강의실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등교나 하교시에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을 학업에 할애할 수 있다. 칼리지 생활은 학생들에게 정말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학생들은 자기 학문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지도 교수와 상의하고 그의 충고를 따르지만 대체로 그의 수업은 받지 않는다. 학생들의 전공 수업은 주로 개인 지도 교수(supervisor)의 지도하에서 행해진다. 인문계의 강의실은 Sidwick Site, 이공계의 강의실은 Cavendish 연구소에 있다.

박사 과정의 세미나는 본교 교수들이 하지 않고 타대학 교수들이 담당한다. 연구나 여행을 목적으로 이 곳을 방문하는 학자들의 학술 강연은 학문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자기 전공 분야의 학자들과 서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강연회는 대체로 저녁 8시 30

분에 개최된다. 칼리지에 학생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다. 대학 생활을 가정 생활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개인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고 학문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케임브리지대학의 전통이다.

케임브리지대학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개인 지도 교수제를 가장 큰 특성으로 한다. 개인 지도 교수는 칼리지에서 지정해 주며 칼리지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 학생의 전공 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교수가 케임브리지에 없다면 타대학 또는 외국의 대학에 있는 그 방면의 전문가를 소개해 준다. 즉 넓게 선택할 수 있는 전공 분야, 학문에 임하는 그들의 철저한 태도와 앞서 가려는 경쟁심이 케임브리지를 학문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만든 원동력임에 틀림이 없다. 학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6~7 과목을 수강하는데 과목마다 한 사람의 개인 지도 교수가 있기 때문에 한 학생당 6~7 명의 개인 지도 교수가 배정된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경우 교수 1명에 학생 1명 기준으로 매주 한번씩 개인 지도 교수와 학생이 만나 과제로 받았던 리포트 즉 에세이(essay)를 읽고 토론하고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독서할 책과 과제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한 학생이 일주일 동안에 6~7 개의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는데 한 에세이의 분량은 타자 용지로 평균 8매 정도는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학생이 1주일 동안 50여 매의 에세이를 써야 한다. 한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권 정도의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러한 피나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학문적으로 대가가 된다는 것은 망상일 것이다. 학문의 세계는 비경의 세계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가장 좋은 학설만이 존재 가치가 있지 그 다음으로 좋은 학설은 무가치하다.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은 1년에 평균 25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매학기초마다 100권 정도의 독서 목록이 학생들에게 배부되며, 강의는 학생들이 이 책을 다 읽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행해진다. 강의는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들의 자신 있는 주장에서 케임브리지맨의 긍지를 찾

아볼 수 있다.

개인 지도는 교수와 학생 1:1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고 전공을 세분화할 수도 있으며 개인 능력에 따라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학생이 지도 교수로부터 학문 연구에 관한 많은 자극과 의욕을 받을 수 있고 또 학문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이라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지식 전달만이 교수의 임무가 아님은 자명하다.

도서관 시설도 완벽에 가깝다. 학과 도서관, 칼리지 도서관, 중앙 도서관 등 수많은 도서관이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중앙 도서관은 영국의 저작권 도서관(copyright library)으로서 영국에서 출판되는 책은 자동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다. 15 세기의 중앙 도서관의 첫 카타로그에는 122권의 책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 도서관은 약 35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산화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영국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어도 도서관 예산만은 무제한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주임 교수의 승인만 받으면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곳 도서관에서는 1차 문헌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어 연구 활동에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따라서 케임브리지대학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교수들이 와서 풍부한 문헌을 이용하여 저작에 몰두하고 있다. 조용한 칼리지의 연구실에서 세상을 잊고 저작에만 열중하는 교수들을 볼 때 학문하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낀다. 자기가 소속된 칼리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교수들도 많이 있다. 한 인간의 모든 것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케임브리지대학이야말로 세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기틀이며 산실이다.

교수들은 매 2년마다 9개월간의 휴가를 받는다. 그리하여 이 휴가 기간 동안 교수들은 책을 쓰거나 외국에 가서 연구한다.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도 이러한 제도는 없으며 영국인만이 지닌 독특한 제도이다.

진리 그 자체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만나는 한 개의 길이며 학문은 온 인류가 상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는 수단이다. 이 길을 통해서 민족 정신과 세계 정신이 교류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세계 정신은 대학에 살아

있고 또 대학이 세계적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세계 문화가 민족과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문화여야 한다면, 대학의 사명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동시에 세계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 오늘날 순수한 민족 문화일수록 세계 문화에 흡수되고 그렇지 못한 문화 민족일수록 세계 문화에서 자연도태하게 된다. Bacon, Newton, Darwin, Milton 등이 케임브리지의 자랑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자랑임은 이러한 이유에서 다.

케임브리지대학의 부설 기관인 취업 알선소에는 케임브리지대학 졸업생을 誘致하기 위하여 세계의 우수한 연구소, 기업 또는 대학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다.

産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케임브리지다. 케임브리지멘들은 학문뿐만 아니라 운동, 탐험에도 열심이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남극 탐험에 도전했다. Scott 극 탐험 연구소 등 세계에 몇 개밖에 없는 귀중한 연구소들이 이 곳에 있다. 그들은 학문적인 면에서는 첨단을 달리지만 오랜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현재에도 정장을 하고 가운을 입어야 식당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칼리지에서는 식사 시간에 촛불을 켜고 라틴어로 기도를 한다. 강의 시간에 교수들은 가운을 입으며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학생들도 가운을 입는다.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졸업 시험은 학과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1부와 2부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1부 시험은 2년말에 보는데 어떤 학과에서는 1년말에 예비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2부 시험은 1부보다 전문적이며 3년말에 본다. 만일 시험에 낙제하면 10일 후에 재시험의 기회를 한번 줄 뿐이다. 학과를 바꾸어서 예를 들면 1부 시험에 법학을 하고 2부 시험에서는 역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1년간 더 등록을 해야 한다. 시험은 대체로 과목마다 3시간의 필기 시험과 1만 단어 정도의 논문을 제출한다. 이학부의 경우는 물론 실험 실습도 해야 한다.

케임브리지대학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모든 제도가 학과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제도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입학 정원도 칼리지가 결정하며 시험 과목이나 졸업 연한도 과에 따라 다르다. Modern and Medieval Language 科의 예를 들면, 졸업 시험은 1부와 2부로 구분되고 1부에서는 주로 어학에 치중하며 전공 언어로 구두 시험과 필기 시험을 치른다. 1부 시험에서 두 개의 외국어를 선택해야 하는데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1년과 2년말에 각각 한 개씩 보든지 1년이나 2년말에 두 개를 다 볼 수 있다. 2부 시험 역시 구두 시험과 필기 시험으로 구분되며 이 외에도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전공 분야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의 문학, 역사, 사상, 역사 비교언어학, 비교문학, 일반언어학 등 매우 다양하다. 어문학과의 학생들은 1년간 외국에 유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 연한은 4년이며 대학 당국의 승인만 있다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어문학도 전공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학부 졸업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고 약간의 등록금만 지불하면 자동적으로 2년 후에 석사가 된다. 케임브리지대학의 학부 졸업생에게는 저서를 박사 학위 논문으로 대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는 옥스포드대학과 더블린의 트리니티대학 외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타대학의 박사 학위 소지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 석사 학위 소지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16회의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 반면에 케임브리지대학의 학생들은 2회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의 과외 활동도 매우 활발하여 케임브리지대학에는 조류 관찰 클럽, 포도주 시음 클럽으로부터 禪佛敎 등 250여 가지의 클럽이 있다.

이렇게 바쁜 중에도 거의 모든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양로원 등에 가서 청소도 하고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사회 봉사 활동을 한다.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행사는 6월 초순 시험이 끝나는 날 실시되는 May Ball이다. 이 무도회야말로 남만의 극치이며 젊음의 활력소라 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에 외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영연



▲ Queen's College와 Cam江

방에서의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유럽 대륙과는 달리 학비가 매우 비싸다. 1년에 등록금이 약 4,500 파운드, 생활비가 4,000 파운드, 즉 한 학생이 1년에 필요한 경비는 1,150만 원 정도다. 그런데 독일에서 유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는 이것의 약 1/3이면 충분하다.

3. 傳統과 學風

옥스포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이 존재하는 한, 영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들 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이 영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국 고급 관리의 75% 정도가 이들 Oxbridge 출신들이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엘리트의 양성이다. 케임브리지대학은 수 세기 동안 영국의 정신 문화를 지배해 왔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된다는 말이 과연 틀린 말은 아니다.

테크닉은 불가피한 필연성에 의하여 발전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간은 문화의 하위 부분에 불과했던 테크닉의 노예가 되었다. 테크닉은 대중에 의해서 대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화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 없이는 창조될 수 없다. 학문의 자유는 이러한 의미에서 절대로 필요하다. 현대인의 과제는 정신적인 문화와 물질적인 테크닉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 대학인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은 이러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만이 인간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전통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어느 분야이든 세계적인 대가들을 배출하는 데 있다. 현재 케임브리지대학이 세계적인 학문의 중심지가 된 것은 선배들이 쌓아 놓은 학문의 전통을 지키려는 후배들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알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사명이 세계의 학문을 이끌어 가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이 순간까지 축적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 학술 잡지가 도서관을 통해서 교수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어도 1~2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교수들이 신간 서적을 열람하고 난 다음 도서관으로 넘겨 주어 정리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올림픽의 기록만큼 학문하는 데에도 시간은 중요하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수학과 자연과학이 우세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Bacon, Newton, Harvey, Darwin, Cavendish, Keynes, Milton, Byron, Wordsworth, Toynbee, Russel 등 헤아릴 수 없는 석학들이 모두 이곳 출신이다. 미국 Cambridge에 있는 Havard 대학의 창설자인 Harvard도 이곳 출신이다. 인류의 역사상 어느 한 장소에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공헌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이 집단적으로 창출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Trinity College에 서만도 4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에게 박수를 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영국의 왕실 가족으로서도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찰즈 황태자도 Trinity에서 3년간 다른 일반 학생처럼 기숙사 생활을 했다. King's College를 세운 헨리 7세가 그보다 2년 전에 Eton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들 두 학교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다수의 Eton 출신이 King's College에 진학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Eton 출신이 King's College에 무시험으로 입학되었다. Eton-King's College와 Westminster-Trinity College의 우위 경쟁은 또한 유명하다.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의 가문으로 Keynes 家와 Darwin 家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두 가문은 Oxbridge 대학에 가장 많은 교수를 배출했다. 현재 Darwin College는 바로 Darwin의 生家이다.

Newton이 거처했던 방과 그의 많은 원고와 가계부까지 Trinity College 도서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에라스무스가 거처했던 Queen's College의 두세 평 되는 작은 다락방에는 그가 사용했던 침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한 장의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재 양성은 도서관과 실험실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곳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선배들의 위업을 계승하려는 그들의 열성과 의지, 세계 제일이라는 자부심 등이 현재의 케임브리지대학을 만들었을 것이다.

King's College 등 몇 개의 칼리지는 진취적이어서 식사 시간에 정장이나 가운을 입지 않는다. 자유스럽고 진취적이며 전통과 현실주의가 조화된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인간의 한계성에도 도전하는 대학인이 존재하는 한 우리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한 사람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학문의 방향을 결정했던 시대는 지났다. 근대 학문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교수, 연구원, 학생은 물론 온 국민이 Teamwork을 이루어 모두 힘을 합쳐야만 한다.

옛날의 현명한 군주가 치수에 능한 자라면 현재의 위대한 지도자는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適材適所에 기용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Joseph Trapp의 시에 George I세의 경륜과 지식에 목말라 하는 케임브리지맨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Der König lenkt mit seinem klugen Blick
 Der Universitäten künftiges Geschick:
 Nach Oxford schickt er deshalb Militär,
 Weil Treue und Gehorsam dort vonnöten wär!
 Nach Cambridge—Bücher, weil das nötig tāt
 In dieser wissensdurst'gen, treuen Universität.*